

[6주차 과제] 글말특강 소감 작성0107

2023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글말특강 (3회차)

교강사	오정근	강의제목	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
학부(과)	건축학부	학 번	20223243
이 름	송희경		
감상문	<p>Feel(느낀점)</p> <p>지금까지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얕은 대화만을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첫인상, 호감, 질문 등을 통해서 대화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.</p> <p>공감을 하는 것은 기분을 들어주는 것이고 이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았다. 내가 하소연을 할 때 내 고민을 잘 들어주던 친구들,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친구들의 특징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잘 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.</p> <p>설득은 항상 논리로만 통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사실 기반 주의의 대화를 하는 편이었다. 그런데 감정을 통해서 설득이 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. 모든 대화에는 양면이 있다는 말처럼 내 방식만 옳은 말하기도 없고 상대방만 이 옳은말하기도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말하기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느꼈다.</p> <p>진심을 다 해 하는 일들은 다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. 앞으로 내 말하기 습관을 진정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개선해야할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.</p> <p>Do(나에게 적용할 점)</p> <p>평소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선 항상 나에게 성의없게 듣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.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랐었는데 표정, 눈맞춤, 끄덕이기 등의 제스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. 더불어 맞장구를 쳐 주면서 Good Listener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.</p> <p>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로 인정, 지지, 응원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. 앞으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경청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공감을 하면서 말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</p> <p>더불어 나열식 말하기 방식을 많이 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많은데 What-Wh-How를 통해서 핵심을 간단명료하고 여유있게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야겠다.</p> <p>Learn(배울점)</p> <p>어떠한 말을 할 때에 What-Why-How 순서로 말을 하는 것을 크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. 항상 말을 할 때 순서가 다 섞인 느낌으로 '정신없다'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았다. 강의를 통해서 내가 말의 맥락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의도적으로 What-Why-How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해 구조가 있는 말로 개선해야겠다.</p> <p>선한 의도를 읽는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. 전공 특성상 룸메이트나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깨워줄 때가 많았는데 내가 잠에서 깨지 못해서 더 잤을 때 '왜 안 깨워줬나'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친구들이 내가 너무 피곤해해서 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. 앞으로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긍정문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.</p>		